

白江口 戰鬪와 周留城

金 榮 官*

1. 머 리 말
2. 백제부흥군의 활동지역
3. 白江의 位置와 白江口 戰鬪
4. 周留城의 位置
5. 맺 음 말

1. 머 리 말

한국고대사를 보면 몇 개의 획기적인 사건이 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곤 한다. 고조선의 건국과 멸망은 한국사의 시초가 되었고, 삼국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건국과 정립은 한국고대문화사의 중심이 되었고, 백제의 멸망은 신라의 삼국 통일과 남북국시대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당 중심의 국제질서로 바뀌고 삼나라 왜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자리가 되었다.

* 서울歷史博物館 學藝研究官.

백제의 멸망 이후 유민들이 일으킨 부흥운동은 7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변화를 이끈 주요 인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백제 멸망과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한국사 연구자들만이 아닌 일본과 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왜병의 참전과 나당군과의 전투는 백제멸망사 연구가 아닌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사로서 주목받았고 그 중심에는 백강의 입구에서 벌어진 전투와 그 결과로 나타난 백제부흥군의 중심 거점인 주류성의 함락이라는 사실에 대한 연구로 귀결되었다.¹⁾ 백강의 입구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한 왜군의 패배는 백제부흥운동의 종식과 함께 백제유민들이 왜로 건너가 일본 고대문화의 주역이 됨으로써 일본고대사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고, 고구려 멸망과 신라의 삼국통일, 당이 동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제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백강구 전투가 일어난 곳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이 없다. 그리고 백강구 전투 이후 함락된 백제부흥운동의 중심 거점이던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백강의 위치와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 기존의 제설을 정리해 보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투 상황을 정리해 봄으로써 부흥군의 패전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겠다.

2. 백제부흥군의 활동지역

백제부흥군이 활동한 지역은 사비도성과 북방성인 웅진성을 제외한 백제 전역이었다. 660년 7월 의자왕이 항복하고 백제가 멸망했을 당시 나당연합군이 직접 점령한 지역은 사비도성과 웅진성 이외에는 신라군의 진격로상

1) 백제부흥운동에 대한 연구 동향은 필자의 책(『百濟復興運動研究』, 2005, 서경문화사) 14~24쪽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다.

계승해 5도독부, 37주, 250현으로 편제한 후 웅진도독을 제외한 자사, 현령을 모두 백제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백제 구토에 대한 지배정책은 당의 전통적인 점령지 지배정책인 기미지배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백제의 지방세력들은 초기에 일시적으로 당의 5도독부에 편제되었으나 흑치상지처럼 곧바로 당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복신과 도침의 휘하에 들어가 부흥운동에 참가하였다. 신라군 역시 백제공격로 상에 위치한 백제의 일부 지역만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백제 구토의 대부분은 사비도성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백제유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국왕과 중앙귀족들 대부분이 당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지방의 군장들은 각기 관할 지역에서 유민들을 모으고 복신과 도침의 휘하에 들어가 세력을 규합하고 점령군인 나당군에 대항하며 백제의 국권회복을 위해 봉기하였다. 그러기에 백제멸망 직후부터 664년 3월에 이르기까지 4년여를 백제의 구토 곳곳에서 부흥군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흥군의 활동 내역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부흥군의 활동내역

西曆	月日	主要 事件
660년	7월 13일	백제 사비성 함락됨
	7월 18일	백제 의자왕 항복함
	7월~8월	福信, 黑齒常之 任存城에서 擧兵함
		餘自進 久麻怒利城에서 擧兵함
		正武 豆尸原嶽에서 擧兵함
		도침 王興寺岑城에서 擧兵함
		沙吒相如 別部(益山)에서 擧兵함
	8월 2일	南嶺, 貞峴, □□□城 등에서 부흥군 擧兵함
	8월 26일	소정방 任存城을 공격 小柵만 攻破함
	9월 3일	소정방 의자왕을 포로로 하여 泗泚로부터 乘船廻唐함
劉仁願과 金仁泰가 사비성에 留鎮함		

西曆	月日	主要 事件
660년	9월 5일	達率과 沙彌 覺從이 倭에 백제의 멸망과 鬼室福信, 餘自進의 擧兵을 알림
	9월 23일	부흥군 泗泚城 抄掠, 泗泚 南嶺에 設柵함
		백제 20여 성이 호응함
	9월 28일	熊津都督 王文度 三年山城에서 病死함
	10월 9일	신라 태종무열왕이 태자와 諸將을 거느리고 尙禮城을 침
	10월 18일	尙禮城 함락되고 신라가 官守, 20여 성이 항복함
	10월 30일	신라가 泗泚 南嶺을 쳐서 1,500인이 斬首 당함
	10월	鬼室福信이 왜에 佐平 貴智를 보내 唐 捕虜 100인을 바치고 乞師請救, 백제왕자 扶餘豐璋을 귀국시켜줄 것을 청함
	11월 1일	고구려가 신라 七重城을 공격하여 軍主 匹夫가 戰死함
	11월 5일	신라 태종무열왕이 雞灘을 건너 王興寺岑城을 침
11월 7일	王興寺岑城 함락되고 700인 斬首 당함	
11월 22일	신라왕 백제로부터 돌아가 論功行賞함	
661년	2월	부흥운동군 사비성을 포위함
		唐軍 1,000명 부흥군을 공격하다가 전멸당함
		신라가 사비성에 구원군을 보냄
		檢校帶方州刺史 劉仁軌 웅진도독부에 음
	3월	도침 등이 熊津江口 싸움에서 唐羅軍에게 패하여 1만 명이 戰死함. 사비성의 포위를 풀고 任存城으로 후퇴함
	3월 5일	부흥군 豆良尹城(周留城) 남쪽에서 신라군을 대파함
	3월 12일	신라군 古沙比城 밖에서 屯치고 豆良尹城을 一朔六日동안 공격하였으나 실패함
	4월 19일	부흥군 賓骨壤에서 후퇴하는 大幢, 誓幢, 下州軍을 쳐서 이기고 병장기 등을 노획함이 甚多함
4월	부흥군 角山에서 신라 下州軍, 郎幢에 패해 2,000級이 斬獲당함	
5월 11일	고구려가 신라의 述川城, 北漢山城을 20여일 간 공격했으나 실패함	

西曆	月日	主要 事件
661년	6월	신라 태종무열왕 薨, 문무왕 卽位
	6월	唐 高宗 勅書를 보내 고구려 정벌에 신라도 거병하여 상응할 것을 요구함
		劉仁願 사비에서 배를 타고 鞋浦에 下陸하여 述川城에 다다름
	7월 17일	신라 고구려 정벌군 구성함
	7월	倭 齊明天皇 死, 皇太子 中大兄이 稱制함
	8월	신라 문무왕의 고구려 정벌군이 始飴谷停에 다다름, 부흥군이 甌山城에서 신라군을 가로막음
	9월 19일	신라 문무왕 熊峴停에 다다름
	9월 25일	신라군이 甌山城을 포위함
	9월 27일	甌山城이 함락당함
	9월	신라가 熊峴城을 쌓음
	9월	倭가 豐璋에게 織冠을 주고 多臣 蔣敷의 누이를 妻로 삼게 하여 倭軍 5천 명으로 호위하여 백제로 귀국시킴
	10월	雨述城이 함락되고 1천급 斬首됨, 達率 助服과 恩率 波伽가 항복함
	10월 29일	신라 文武王이 唐의 使臣을 맞으러 歸京함
	10월	唐使가 태종무열왕의 薨을 弔慰함
		唐 含資道摠管 劉德敏이 平壤의 唐軍에 軍糧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勅旨를 가지고 옴
12월 10일	신라의 金仁問 등 9將軍이 軍糧을 싣고 고구려 영토로 들어감	
12월	倭軍이 백제 加巴利濱에 와서 碇泊함	
	熊津都督府의 양식이 다함	
662년	1월 23일	신라군 고구려 七重河를 건너 蒜壤에 다다름, 梨峴에서 고구려군을 만나 이김
	1월 27일	倭에서 福信에게 矢 10만 쌍, 絲 500근, 綿 1,000근, 布 1,000단, 韋 1,000장, 稻種 3,000斛을 보냄

西曆	月日	主要 事件
662년	2월 1일	신라의 金庾信 고구려 獐塞에 도착함
	2월 6일	신라의 金庾信 고구려 楊陝에서 蘇定方의 唐軍에 軍糧을 조달함, 소정방은 바로 歸唐撤軍함
	2월	福信이 道琛을 살해함
		耽羅國主 佐平 徒冬音律이 신라에 가서 항복함
	3월 4일	倭가 백제왕 豐璋에게 布 300단을 줌
	3월	倭의 구원군이 州柔城에 들어옴
	5월	倭가 豐璋을 보내어 왕위를 잇게 하고, 福信에게 金策을 줌
	7월	熊津의 동쪽에서 福信의 부흥군이 劉仁願과 劉仁軌의 唐軍에 대패함
		支羅及尹城, 大山, 沙井等柵이 함락되고 신라군이 分兵鎭守함
		眞峴城이 함락되고 800級이 참수 당함
	7월 21일	唐 右威衛將軍 孫仁師 熊津道行軍總管으로 임명됨
	8월	內斯只城이 함락 당함
12월	豐璋이 州柔城에서 避城으로 옮김	
663년	2월	居列城이 함락되고 700인이 斬首 당함
		居勿城과 沙平城이 함락됨
		德安城이 함락되고 1,070級이 斬首 당함
	2월 2일	倭에 達率 金受를 보내 백제의 南畔四州가 불타고 安德 등 요지를 신라에 빼앗겼다고 알림
	2월	豐璋이 避城에서 州柔城으로 다시 돌아옴
	3월	倭의 征新羅軍 27,000명이 出征함
5월 1일	倭의 犬上君이 고구려에 가서 倭軍의 出兵을 알리고 돌아옴	
5월	唐 右威衛將軍 孫仁師 熊津道行軍總管으로 7,000명의 援兵을 거느리고 웅진도독부에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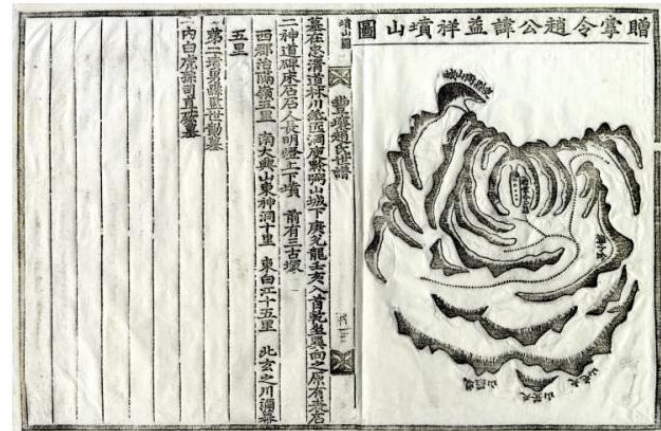
西曆	月日	主要 事件
663년	6월	倭軍이 신라의 沙鼻岐, 奴江의 두 성을 빼앗음
	6월	豊王이 福信을 잡아 죽임
	7월 17일	唐羅軍이 熊津州에서 合兵함
	8월 13일	唐羅軍이 周留城에 다다름
	8월 17일	唐羅軍이 周留城을 포위함
	8월 27일	백제와 倭軍이 白江口戰에서 패함
	8월 28일	白江口戰에서 完敗하고, 豊王은 高구려로 달아남
	9월 7일	周留城이 唐軍에 함락됨
	9월 11일	백제유민 牟攄를 출발
	9월 13일	백제유민 弓禮에 다다름
	9월 25일	백제유민 및 倭軍 弓禮城을 떠나 倭로 향함
	9월	黑齒常之와 沙吒相如 唐軍에 投降함
	10월 21일	唐羅軍이 任存城을 공격했으나 遲受信이 방어함
	11월 4일	신라군 班師함
11월	任存城이 黑齒常之등에게 함락 당하고, 遲受信은 高구려로 달아남	
664년	3월	泗泚山城의 부흥군 殘衆이 熊津都督에게 攻破됨.

3. 白江의 位置와 白江口 戰鬪

백강은 백제 역사상 세 차례 사료에 등장한다. 첫 번째는 동성왕을 시해한 佐平 苜加가 加林城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로잡혀 斬首당한 후 白江에 던져버렸다는 『三國史記』 「百濟本紀」 武寧王 卽位年 春正月의 기록이다. 이때의 백강은 苜加가 참수당한 곳이 가림성 즉 오늘날의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에 있는 성흥산성에 해당하므로⁴⁾ 부여의 남쪽을 흐르는 오늘날

의 백마강 즉 금강이 확실하다. 성흥산성 주변의 강 이름이 백강이라는 것은 비록 조선 후기의 자료이지만 『豊壤趙氏世譜』에 보이는 墳山圖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이 분산도는 1826년 경북 상주시 남장사에서 판각된 『豊壤 趙氏』世譜에 실려 있는데 성흥산성은 고려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庾黔弼 장군의 이름을 따서 庾黔弼山城으로 표시되어 있다. 산성 안에 趙益祥의 무덤이 자리한 곳이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도 조익상의 무덤이 성안에 있으며 또한, 유금필장군의 사당도 남아있다. 분산도 옆에는 曾掌令 趙益祥의 무덤이 위치한 곳이 충청도 임천 유금필 산성 아래이며 서쪽으로는 임천군 治所가 고개 넘어 5리에 있고, 남쪽으로는 대흥산 동신동이 10리이고, 동쪽으로는 白江이 15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현지천 주막이 5리 거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금강을 백강으로 기록한 매우 중요한 실증자료이다.⁵⁾



<그림 2> 『豊壤趙氏世譜』의 趙益祥 墳山圖와 白江

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7 林川郡 建置沿革.

5) 목판은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유물번호는 서13067번이다. 『풍양조씨세보』는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 여러 질이 소장되어 있어 열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결성한 나당연합군이 오늘날의 덕적도를 거쳐 백제의 도성인 사비로 진군하는 도중에 상륙한 지점으로 『三國史記』 「百濟本紀」 의자왕 20년의 기록과 『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의 기록에 보인다. 이때의 기록은 같은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16년 3월의 기록과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7년의 기록, 「列傳」 金庾信의 기록에는 伎伐浦로 나오고 있어 서로 다른 지점을 기록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16년 3월에 백강은 혹은 기벌포라고도 한다고 하였고, 『三國遺事』 「紀異」 太宗春秋公에 기벌포는 長嵩 혹은 孫梁, 只火浦 또는 白江이라고 하여 서로 같은 곳에 대한 다른 표기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舊唐書』 「列傳」 蘇定方에는 熊津江口이라고 하였고,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20년에는 白江을 熊津口와 혼용하여 쓰고 있다.

이처럼 백강에 대한 명칭이 기벌포, 웅진(강)구, 장암, 손량, 지화포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 까닭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20년 조의 기록에 白江과 熊津口라는 기록이 동시에 보이는 등 마치 백강과 웅진구가 별개의 강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웅진구는 오늘날의 금강으로 보고 백강은 금강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나당연합군이 백제도성인 사비성으로 가기 위해서 상륙지로 선택한 기벌포 또는 백강은 금강 이외의 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 특히 나당연합군 수군이 상륙한 육군과 더불어 조수를 타고 나란히 사비성으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진격할 수 있는 곳은 금강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는 사실은 백강과 웅진(강)구, 기벌포 등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는 다른 표기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백강과 기벌포는 금강의 하구를 말하고 웅진구 또는 웅진강구와 동일한 지점에 대한 이칭인 것이다. 더 나아가 금강을 백제에서는 백강이라고 불렀고, 당에서는 웅진강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서에 정리되면서 중국측 기록을 참고하여 웅진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백제측 기록을 참고하여 백강이라고 하였던 것이다.⁶⁾ 또한 지금의 공주 부근을 흐르는 금강에 대한 명칭은 웅진강으로, 지금의 부여 부근을 흐르는 금강에 대하여는 백강이라고 하였다.⁷⁾ 즉, 백강과 기벌포, 웅진강구는 모두 금강의 하구를 가리키는 명칭이므로 660년 7월 나당연합군이 상륙한 지역은 바로 금강의 입구였다.

세 번째는 백제부흥군과 왜 수군의 연합군과 나당연합군이 일대 격전을 치른 663년 8월의 백강이다. 여기서 백강은 백제부흥군의 최대 거점인 周留城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이에 대한 사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於是仁師仁願及羅王金法敏 帥陸軍進 劉仁軌及別帥杜爽扶餘隆 帥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 以會陸軍 同趨周留城 遇倭人白江口 四戰皆克 焚其舟四百艘 煙炎灼天 海水爲丹 王扶餘豐脫身而走 不知所在 或云奔高句麗 獲其寶劍 王子扶餘忠勝忠志等帥其衆 與倭人並降 獨遲受信據任存城未下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20년).
- ② 於是仁師仁願及羅王金法敏 帥陸軍進 劉仁軌及別帥杜爽扶餘隆 率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 以會陸軍 同趨周留城 仁軌遇扶餘豐之衆於白江之口 四戰皆捷 焚其舟四百艘 賊衆大潰 扶餘豐脫身而走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率士女及倭衆並降 百濟諸城 皆復歸順 (『舊唐書』 권199 列傳 卷149 東夷百濟國).
- ③ 於是仁師仁願及新羅王金法敏 帥陸軍以進 仁軌乃別率杜爽扶餘隆 率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 會陸軍 同趨周留城 仁軌遇倭兵於白江之口 四戰捷 焚其舟四百艘 煙焰漲天 海水皆赤 賊衆大潰 餘豐脫身而走 獲其寶劍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 率士女及倭衆並耽羅國使 一時並降 百濟諸城 皆復歸順 賊帥遲受信據任存城不降 (『舊唐書』 권84 列傳 卷34 劉仁軌).

6) 沈正輔, 「中國側史料를 통해 본 白江의 位置問題」, 『震檀學報』 66, 1988 : 「白江의 位置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 2, 1989 : 서정석, 「백제 白江의 위치」, 『白山學報』 69, 2004.

7) 淺川伯教, 「扶餘白馬江」, 『日本地理大系 12-朝鮮篇』, 改造社, 66쪽.

- ④ 於是仁師仁願及法敏 帥陸軍以進 仁軌與杜爽扶餘隆 繇熊津白江會之 遇倭人白江口 四戰皆克 焚四百艘 海水爲丹 扶餘豐脫身走 獲其寶劍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 率其衆與倭人降 獨酋帥遲受信據任存城未下(『新唐書』 권108 列傳 제33 劉仁軌).
- ⑤ 仁願已得齊兵 乃與新羅王金法敏 率步騎 而遣劉仁軌 率舟師 自熊津江偕進 趨周留城 豐屯白江口 四戰皆克 火四百艘 豐走 不知所在 僞王子扶餘忠勝忠志 率殘及倭人請命 諸城皆復(『新唐書』 권220 列傳 제145 東夷 百濟).
- ⑥ 九月戊午熊津道行軍總管右威衛將軍孫仁師等 破百濟餘衆及倭兵於白江 拔其周留城 (중략) 於是仁師仁願與新羅王法敏 將陸軍以進 仁軌與別將杜爽扶餘隆 將水軍及糧船 自熊津入白江 以會陸軍 同趣周留城 遇倭兵於白江口 四戰皆捷 焚其舟四百艘 煙炎灼天 海水爲赤 百濟王豐脫奔高麗 王子忠勝忠志等帥衆降 百濟盡平 唯別帥遲受信據任存城 不下(『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龍朔 3년 9월).

『三國史記』와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은 한결같이 당의 孫仁師와 신라 문무왕과 함께 陸軍을 거느리고 주류성으로 진군했고, 劉仁軌와 杜爽, 扶餘隆은 水軍과 糧船을 거느리고 熊津江에서부터 白江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周留城으로 진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白江의 입구에서 백제의 부여풍 또는 왜군을 만나 4번의 전투를 벌여 400척의 배를 불태우는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三國史記』의 기록은 『舊唐書』와 『新唐書』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고 『資治通鑑』의 기록과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기록은 『日本書紀』에도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 ⑦ 秋八月壬午朔甲午 新羅 以百濟王斬己良將 謨直入國先取州柔 於是百濟知賊所計 謂諸將曰 今聞 大日本國之救將盧原君臣 率健兒萬餘 正當越海而至 願諸將軍等 應預圖之 我欲自往待饗白村 戊戌 賊將至於州柔 繞其王城 大唐軍將 率戰船一百七十艘 陣烈於白村江 戊申 日本船師初至者 與大唐

船師合戰 日本不利而退 大唐堅陣而守 己酉 日本諸將 與百濟王 不觀氣象而相謂之曰 我等爭先 彼應自退 更率日本亂伍 中軍之卒 進打大唐堅陣之軍 大唐便自左右夾船繞戰 須臾之際 官軍敗績 赴水溺死者衆 鱸舳不得回旋 朴市田來津 仰天而誓 切齒而嘖 殺數十人 於是戰死 是時 百濟王豐璋與數人乘船 逃去高麗(『日本書紀』 권 제27 天智天皇 2년).

『日本書紀』에는 주류성을 州柔로 백강을 白村江으로 달리 기록하였지만 주류성과 州柔城, 백강과 白村江이 동일한 지명을 두고 달리 표기한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日本書紀』에는 백제부흥군과 왜의 구원군이 나당연합군이 주류성을 공격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흥군과 왜군은 주류성으로 향하는 나당연합군을 막기 위하여 미리 백(촌)강으로 가서 당의 수군 170척과 결전을 벌였으나 당의 수군이 백촌강에서 진열을 굳게 하여 막아냈고 부흥군과 왜군의 수군은 氣象을 살피지 않고 싸우다가 당군의 협공에 그만 패전하고 말았다는 기록이다.

위 기록들로 인해 주류성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백(촌)강의 위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설이 발생했고 아직도 그 위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학자가 660년 7월 나당연합군이 상륙한 백강구를 금강의 하구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663년 8월 주류성으로 진군하던 나당연합군과 백제부흥군이 대화전을 치른 백강의 입구는 별개의 곳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백강의 위치는 660년 7월에는 금강 입구였지만 663년 8월에는 각기 다른 곳으로 비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백강의 위치에 대한 제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주장의 요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은 백강이 금강이라는 설이다. 이는 660년 7월 백제 사비도성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한 나당연합군이 상륙한 지역이 오늘날의 금강의 입구인 기벌포는 백강과 동일한 곳이라는 점에서 663년 8월의 백강도 금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주장은 1913년 津田左右吉이 『百濟戰役地理考(『朝鮮歷史地理』上,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서 밝혔고, 1933년 池內宏이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제14책; 『滿鮮史研究』 上世 第二冊, 吉川弘文館, 1960)에서 이어 받았다. 申采浩는 1931년 이후 朝鮮日報에 연재한 朝鮮史에서 白江은 白馬江이고 백마강은 白村江이라고 단정하였다(『朝鮮上古史』, 鐘路書院, 1948; 丹齋 申采浩先生 記念事業會, 1986). 1948년 安在鴻은 웅진강은 금강의 총칭이고 白江 또는 기벌포는 국지적인 부분에 대한 명칭이며, 백강과 기벌포는 금강 하류 이외의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百濟史總考』, 『朝鮮上古史鑑』 下卷, 民友社). 이후 1971년 輕部慈恩(『百濟都城及び百濟末期の戰跡に關する歷史地理的檢討』, 『百濟遺跡の研究』, 吉川弘文館), 1972년 池憲英(『豆良尹城에 대하여』, 『百濟研究』 3,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7년 李丙燾(『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81년 鬼頭清明(『白村江-東アジアの動亂と日本-』, 教育社), 1983년 沈正輔(『百濟復興軍의 主要據點에 關한 研究』, 『百濟研究』 1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95년 鈴木治(『白村江-古代日本の敗戰と藥師寺の謎-』, 學生社)와 盧重國(『百濟 滅亡後 復興軍의 復興戰爭 研究』, 『歷史의 再照明』, 소화;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년 金榮官(『百濟復興運動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5, 『百濟復興運動研究』, 서경) 등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은 백강을 東津江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小田省吾였다. 小田省吾는 1923년에서 1924년 사이에 진행한 朝鮮史講座에서 朝鮮總督府 視學官으로 참여하여 조선의 개창에서 통일신라의 멸망까지를 다룬 『朝鮮上世史』 강의를 담당하였던 인물로 후에 京城帝國大學 교수와 조선사편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금강은 웅진강으로 불렸고, 금강의 하구는 웅진강구 또는 웅진구로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백강의 하구는 별도로 백강구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특히 『三國史記』에 당군이 주류성을 포위

하는 기록에 “유인궤 등이 水軍과 糧船을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갔다”는 기록에 주목해 당의 수군이 웅진강구를 나와 백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백강은 웅진강과 명백히 다른 강이라는 것이다. 또한 『三國史記』에 “백강은 혹은 기벌포라고 한다”는 기록에 보이는 기벌포(キブル)는 정읍과 부안의 두 군을 흐르는 동진강의 하구에 있는 ‘界火島’의 독음인 ‘게불(ゲイブル)’과 같고 동진강의 하구에서 가까운 부안읍의 옛 이름인 皆火 역시 ‘게폴(ゲイブル)’로 매우 비슷하며, 지세를 살펴봐도 동진강은 만경강의 남쪽에 있어서 두 강의 입구가 합쳐서 하나의 만을 형성하고 있어서 금강의 입구 즉 웅진강구와 멀지 않다. 따라서 주류성을 공격할 때 유인궤가 거느린 당의 수군은 웅진강구를 나와서 지금의 동진강구인 백강구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三國史記』에 “유인궤 등이 水軍과 糧船을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갔다”고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백강구는 곧 기벌포로서 동진강 하구로 비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백강은 결코 큰 강이 아니고, 『日本書紀』의 白村江과 같은 지명이라고 하였다.⁸⁾

小田省吾의 이런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은 全榮來였다. 전영래는 1976년(『周留城・白江 位置比定에 관한 新研究』, 扶安郡)에 주류성의 위치를 부안 위금암산성에 비정하면서 백강을 동진강에 비정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백제부흥군과 부안지방에 관련한 일련의 논고를 발표하고 있다. 1982년에 『三國統一戰爭과 百濟復興運動-周留城・白江의 軍事地理學的 考察-』(『軍史』 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5년에 『우금(周留)山城 關聯 遺蹟 地表調査報告書』(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扶安郡), 1996년에 『百濟最後決戰場의 研究-白村江에서 大野城까지』(新亞出版社), 1998년 『冬老古城과 兆陽城-보성군 조성면의 역사와 유적-』(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양축제추진위원회), 1999년에 『周留城・白江과 扶安地方』(『백제 주류성의 연구현황과 과제』,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공주문화원)과 『부안 우금산

8) 小田省吾, 『朝鮮上世史』, 『朝鮮一般史』, 1924, 194쪽.

성내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부안군·전주대학교 박물관), 2004년에 『百濟滅亡と古代日本』(雄山閣) 등의 논저를 냈다.

그는 또한 660년 백제 사비도성으로 진군하던 나당연합군의 수군이 상륙한 백강의 입구인 기벌포도 동진강이라고 하였다. 『舊唐書』의 蘇定方 列傳에 나당연합군이 상륙한 지점을 강의 동쪽이라고 한 기록을 근거로 금강 하류는 거의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당군이 동쪽 기슭으로 올랐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소정방이 상륙한 곳은 江口가 남~북으로 트인 곳의 바다 쪽에서 볼 때 江流의 동쪽이 아니라 육지의 동쪽 기슭이어야 하므로, 백강은 금강 부근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어야만 하고, 이러한 곳은 부안의 동진강뿐이므로 백강은 동진강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정방의 당군이 상륙한 곳도 동진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영래의 이러한 견해는 금강이 크게 보면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이 분명하지만 지금의 군산시 성덕면 오성산의 금강 하구쪽 부근에서 크게 서남쪽으로 곡류하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오성산 부근에서 동북쪽으로 크게 휘어진 물줄기는 나당연합군 수군이 동쪽 기슭으로 상륙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만큼 동쪽이 산줄기에 의해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당연합군이 동쪽으로 상륙할 수 있는 곳이 동진강만이라는 것은 금강의 지리적 특성을 간과하여 생긴 착오이다. 따라서 660년 나당연합군이 상륙한 곳은 바로 오늘날의 금강 하구이다.

이 밖에 1995년 鄭孝雲(『古代韓日政治交渉史研究』, 學研文化社), 1996년 이도학(『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2000년 徐程錫(『百濟 5方城의 位置에 대한 試考』, 『백제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호서고고학회), 2004년 李鍾學(『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하여』, 『軍史』 5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⁹⁾ 등이 백강 동진강설에 동조를 하고 있다.

동진강설과 유사한 설로 만경강 설이 있는데, 小田省吾와 함께 朝鮮史講座를 진행한 大原利武가 주장하였다. 그는 「朝鮮歷史地理 강좌(『朝鮮一般

史』, 朝鮮總督府, 1924)에서 萬頃江 河口的 古沙里가 당이 백제를 평정한 후 오늘날의 古阜에 설치한 古四州의 관할 하에 있던 平倭縣이 있었던 곳이고, 平倭縣이라는 지명은 왜군을 격파한 것을 기념해서 붙여진 이름이므로 만경강이 고대의 백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본인도 확신하지 못한 채 같은 글에 붙인 삽도에 의문부호를 달아 놓았다.

다음으로 부안 苗浦의 內浦를 백강으로 추정된 견해가 있다. 1934년 今西龍(『白江考』, 『百濟史研究』, 近澤書店)이 “주류성이라고 비정되는 변산의 위금암산성과 가까운 곳 중에서 수심이 깊고 폭이 넓어 왜군의 수군이 정박할 수 있고 당의 수군과 전투를 치를 만한 곳으로는 부안 진서리의 내포 熊淵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660년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공략할 때의 백강은 지금의 금강이라고 하였다. 1979년 光岡雅彦(『白村江はどこか』, 『支石墓の謎』, 學生社)이 今西龍의 주장을 이어받았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1980년 부안 苗浦의 두포천을 백강으로 비정한 盧道陽(『百濟周留城考』, 『明知大論文集』 12, 明知大學)이 있다.

또한 아산만 또는 아산만 안쪽의 안성천 하구를 백강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이 역시 주류성과의 관계 속에서 660년 나당연합군의 상륙지점에 대한 고려 없이 663년 8월 주류성 전투에 앞서 백강구에서 벌어진 전투의 현장을 추정하였다. 1981년에 주류성의 위치를 충남 연기군에 비정한 金在鵬(『全義 周留城考證』, 『燕岐地區古蹟研究調查報告書-全義篇-』)은 1981년 백강의 위치가 안성천 하구의 白石浦가 일본어 발음으로 백촌강의 발음과 같은 ‘하쿠스키노에(ハクスキノエ)’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 지역은 흰 모래가 많아 사료에 나오는 白沙와도 부합된다고 하였다. 1995년(『百濟周留城의 研究』, 燕岐郡)과 1999년(『百濟 周留城研究』, 『백제 주류성의 연구현황과 과제』,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공주문화원)에도 자설을 계속 보완하며 발표 하였다. 1987년에는 小林惠子(『白村江の戦いと壬申の亂』, 現代思潮社)가 이 설을 그대로 받아 들여 안성천 입구 백석포를 백(촌)강이라고

9) 李鍾學의 주장은 全榮來의 글을 거의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하였다. 朴性興은 1994년 이후 발표한 논고에서(『洪州 周留城考』, 洪城郡, 1994; 『洪州周留城考—百濟復興戰의 歷史地理的 考察—』, 洪城郡, 1995; 「唐津 白村江과 洪州 周留城—百濟復興戰史의 歷史地理的 考察—」, 『백제 주류성의 연구현황과 과제』,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공주문화원, 1999) 아산만에 위치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의 차돌배기 마을이 白石村이고, 白石은 백촌강의 일본어 발음과 같은 '하쿠스키(ハクスキ)'와 같으므로 이 지역을 백촌강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백강과 기벌포와 백촌강은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백강의 위치에 관한 문제는 주류성의 위치와의 관계 속에서 크게 금강하구설, 동진강설, 부안 줄포 부근설, 아산만 부근설 등 네 가지 설로 나뉘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설 가운데에서 부안 줄포부근설과 아산만설은 660년 7월 나당연합군이 사비도성으로 진군해 가는 도중에 상륙한 백강 또는 기벌포를 금강 하구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단지 발음상 비슷하다는 점만으로 『日本書紀』에 보이는 白村江의 위치를 줄포 또는 아산만 부근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금강하구와 동진강 중에서 어느 곳이 663년 8월의 백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따지면 된다. 이미 앞서도 짚어봤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금강 하류를 백강이라고 하는 설은 660년 7월 나당연합군이 상륙한 백강 또는 기벌포가 663년 8월에 불과 3년 만에 다른 곳으로 바뀔 수 없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게다가 676년 11월의 일이지만 沙滄 施得이 거느린 신라의 船兵 즉 水軍이 所夫里州 伎伐浦에서 薛仁貴의 唐軍을 대파한 기록¹⁰⁾이 있는데, 이때의 소부리주는 672년 신라가 웅진도독부의 사비성을 함락시키고¹¹⁾ 새로이 설치한 주이고, 소부리주 기벌포는 금강 하

구의 기벌포인 것이다.¹²⁾ 그러므로 백강구 전투가 있기 3년 전인 660년 7월의 기벌포와 백강구 전투 13년 후의 기벌포가 금강 하구라는 것이 분명한데 663년 8월의 백강구 전투의 현장인 기벌포의 위치가 갑자기 바뀔 리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기벌포가 금강 하구임이 분명한 이상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와 당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백강의 위치가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웅진강에서부터 백강으로 나당연합수군이 진군했다는 기록만을 가지고 웅진강과 백강을 별개의 강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일한 물줄기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오늘날의 강 이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당연합군은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해 일단 웅진도독부가 있던 공주의 웅진강에서 출발해 사비를 거쳐 금강하구의 백강으로 진군했던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벌포와 백강이 동일한 지명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진강 입구에 있는 섬인 界火島의 옛 이름이 기벌포와 음가가 비슷한 '개불'이고, 부안의 옛 이름인 皆火 역시 '개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동진강을 기벌포 또는 백강으로 보는 것은 석연치 않다. '개불'이나 '개불'은 기벌포의 '기벌'과도 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즘도 흔히 부르는 '갯벌'과도 통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음운학적인 근거를 들이대 지명을 확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또한 나당연합군이 상륙한 지점이 동쪽이기 때문에 서해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강 중에서 백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 또한 무의미한 오해라는 것은 금강의 흐름이 동에서 서로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금강 하구 군산의 오성산 부근에서 동북에서 서남으로 흐른다는 점을 보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백강의 위치는 오늘날의 금강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앞서 제시한 사료를 통해서 백강의 입구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의 일단을

10) 沙滄施得 領船兵 與薛仁貴戰於所夫里州伎伐浦 敗績 又進大小二十二戰克之 斬首四千餘級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6년 冬11월).

11) 李道學, 『熊津都督府의 支配조직과 對日本政策』, 『白山學報』 34, 1987, 109~111쪽.

12) 沈正輔, 『白江과 周留城』, 『乾芝山城』, 忠清南道 舒川郡·忠清埋藏文化財研究院, 1998, 235쪽.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백강구로 향하는 당군은 신라군과 연합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육군은 문무왕이 거느린 신라군¹³⁾과 유인원과 손인사가 거느린 당군으로 구성되었고, 수군은 유인케와 두상, 부여음이 거느렸고 보급선인 糧船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당연합군이 다시 한 번 구성된 것이다.

나당연합군이 수군과 육군으로 편성된 것은 660년 7월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 즉 水陸으로 竝進하여 주류성으로 육박하고자 한 나당연합군은 문무왕이 직접 출정하고 있다. 이는 신라군이 전력을 다하여 부흥군을 제압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660년 7월의 상황과는 반대로 당군은 손인사가 거느린 7,000명과 웅진도독부에 주둔하던 1만명 이하의 당군 등 1만 7,000명이 안 되는 병력이었던 반면에 신라는 김유신 등 28장군이 출정하고 있어 신라군이 수적으로 우세하였다. 나당연합군은 육군은 웅진도독부에서 백강으로 가고, 수군은 웅진강에서 배를 타고 백강의 하구로 가서 만나기로 하였다. 특히 육군은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이던 가림성을 우회하기로 하고 금강의 남안을 따라 내려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나당연합군의 주류성을 향한 진군로는 660년 7월 백강 하구에서 사비도성으로 진군했던 경로를 역으로 선택한 것이다.

周留城의 부흥군도 나당군의 공격계획을 미리 알고 대비해 방어전략을 펼쳤다. 우선 부흥군의 주요 거점성들이 신라군과 당군에 의해 속속 함락당하자 부흥군은 군수물자의 부족을 해결하려고 일시로 읍졌던 평야지대에 위치한 遊城에서 산이 험하고 계곡이 깊어 방어하기 유리한 천험의 요새지인 주류성으로 돌아와 방비를 단단히 하였다. 이른바 농성전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와 왜에 구원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⁴⁾ 고구려는 당군의 공격으로 구원군이 증로에 제압당하였으나, 倭의 구원군은

13) 신라군은 김유신과 김인문, 천존, 죽지 등 등 28장군(또는 30장군)이 출정하였다(『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3년 5월 및 『三國史記』列傳 金庾信 中).

14) 遣使高句麗倭國乞師 以拒唐兵(『三國史記』百濟本紀 義慈王 20년).

白江口 전투와 주류성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무렵 부흥군은 이미 왜에서 온 2만 7,000명의 구원군이 합세한 상태였다.¹⁵⁾ 이제 百濟·倭의 연합군은 羅唐聯合軍과 대결전을 치르게 되었다.

白江口에 도착한 신라군과 당군은 부흥군과 왜군을 상대로 접전을 펼쳐 대승을 거두게 된다. 『三國史記』百濟本紀와 『新唐書』劉仁軌 列傳에는 白江口에서 倭軍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舊唐書』東夷 百濟國 列傳과 『新唐書』東夷 百濟 列傳에는 白江口에 주둔하고 있는 扶餘豐을 만난 것으로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백강구 전투의 주력을 부흥군으로 인식한 것인지 倭軍으로 인식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백강구 전투에서의 전투양상은 전투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진 것보다는 육군과 수군의 전투 기록이 혼재되어 있다. 『資治通鑑』에는 백강구에서 만난 것이 왜군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이때 부흥운동군과 왜군을 백강구 전투에서 공파하였다고 복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또한 나당군을 방어하던 부흥운동군과 왜군이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答薛仁貴書를 보면 웅진도독부에서 출발한 신라군이 주류성으로 진군하였을 때, 왜군은 白沙(白江)에 정박해 있었고, 부흥군의 精騎는 강 언덕 위에서 왜의 수군을 지키고 있었다. 이때 신라군이 당군의 선봉이 되어 강 언덕 위의 부흥군을 격파하였다. 즉 백강구의 해전에서는 당의 수군이 왜의 수군을 만나 격파하였고, 육상에서는 신라군이 부흥군을 격파하였다.¹⁶⁾

『日本書紀』의 기록을 보면 663년 8월 13일 부흥군은 이미 나당군이 주류성을 공격하려는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다. 扶餘豐은 왜의 盧原君臣이 거느리고 오는 1만 구원군을 영접하러 백강으로 갔다. 扶餘豐은 周留城에서 농

15) 『日本書紀』권 제27 天智天皇 2년 3월.

16) 龍朔三年 總管孫仁師 領兵來救府城 新羅兵馬亦發同征 行至周留城下 此時 倭國船兵 來助 百濟 倭船千艘 停在白沙 百濟精騎 岸上守船 新羅驍騎爲漢前鋒 先破岸陣 周留失膽 遂即降下(『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11년 答薛仁貴書).

성하는 것보다는 왜의 구원군을 맞이하는 것을 더 중시했던 것 같다. 이는 풍이 나당연합군의 주력을 당군으로 보고 금강 하구에서 육군과 만나기로 한 수군을 먼저 격파하기 위해 길목을 지키기 위해 백강의 입구에서 수군이 주력인 왜군과 함께 나당연합수군을 선제공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8월 17일에 왜의 수군이 백강구에 도착하여 길목을 막고 나당군의 수군과 싸웠으나 불리하여 퇴각했다. 그 후 다시 8월 28일에 왜의 수군과 백제의 풍왕은 나당군 수군에 대하여 기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대오가 난삽하여 조직력이 미약한 왜의 수군이 견고하게 전열을 구축한 나당군의 수군을 이길 수 없었다. 오히려 나당군의 수군은 왜군 수군을 좌우에서 협격하였다. 왜군은 나당군의 撞破戰術과 협공전략에 밀려 많은 사상자를 내고 네 차례 전투에서 모두 패하고 말았다.

왜의 수군이 나당군에게 참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오가 난삽한 군대로 수비를 굳건히 한 나당군의 수군을 공격하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투에 앞서 조수나 해풍 등 바다의 기상을 고려하면서 전투에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공격하다가 나당군의 역공에 밀려 진퇴양난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점이다. 셋째로 나당군의 전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없이 왜군의 군세만을 믿고 전쟁의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왜군의 오판은 결국 백강구전의 참패로 이어졌다. 백강구 전투에서 왜군은 1,000척의 전함 중 中軍이 거느린 400척의 전함을 잃는 대패를 당하였고, 풍왕이 거느린 부흥운동군도 백강의 언덕 위에서 신라군에게 패배하였다. 그 결과 倭將 朴市田來津 등이 전사하였고 부흥군의 최고지도자인 풍왕마저도 배를 타고 고구려로 달아났다. 백강구 전투의 패배로 전의를 상실한 부흥운동군은 9월 7일에는 주류성마저 나당군에게 내주고 말았다.¹⁷⁾

17) 九月辛亥朔丁巳 百濟州柔城 始降於唐(『日本書紀』 권 제27 天智天皇 3년).

4. 周留城의 位置

周留城이 임존성과 함께 백제부흥군의 양대 거점이었고, 특히 부흥군의 지도자였던 福信과 扶余豊이 머무르면서 부흥운동을 지휘했던 최대 거점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임존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봉수산성¹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주류성에 대한 기록은 『三國史記』 「百濟本紀」와 「新羅本紀」, 『舊唐書』와 『新唐書』 「列傳」, 『資治通鑑』 등에 모두 백제부흥군의 거점이자 소굴로 기록되어 있다.¹⁹⁾ 특히 『三國史記』 「新羅本紀」 문무왕 11년 조의 「答薛仁貴書」에 주류성을 함락한 후 “南方已定 廻軍北伐一城”²⁰⁾하였다는 기록에서처럼 주류성은 부흥군의 남방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부흥군의 중요한 남방 거점이었던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雜志」 地理의 三國有名未詳地分 조에 실려 있어 이름만 알려져 있고 구체적인 위치를 모른다고 하고 있다. 다만 支羅城을 혹은 周留城이라고 하였으나, 지라성은 웅진의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오늘날의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迭峴城에 비정되고 있어²¹⁾ 백제 남방에 있던 주류성과는 별개의 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서로 관련이 없다. 주류성에 관한 다른 표기로는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에는 豆率城으로 되어 있다. 두울성은 주류성과 발음상 유사할 뿐만 아니라 「新羅本紀」의 기록과 대조해 볼 때 주류성에 대한 또 다른 표기로 보는데 이론이 없다.²²⁾ 또한 『日本書紀』에

18) 禮山郡·忠南發展研究院, 『禮山 任存城』, 2000.

19) 周留城 百濟巢穴.

20) 주류성을 함락한 나당군이 북쪽으로 군사를 돌려 점령하고자 했던 부흥군의 북방 거점이 任存城이라는 것은 여러 사서의 기록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21) 沈正輔, 「한말의 城郭」, 『大田의 城郭』, 1993, 大田直轄市, 217~223쪽.

는 주류성에 대한 다른 표기를 찾을 수 있는데 주류성과 동일한 지명에 대한 이칭으로 보는데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즉 주류성을 州柔城이라 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冬十二月丙戌朔 百濟王豐璋 其臣佐平福信等 與狹井連(關名) 朴市田來津議曰 此州柔者 遠隔田畝 土地礪礪 非農桑之地 是拒戰之場 此焉久處 民可飢饉 今可遷於避城 避城者 西北帶以古連且涇之水 東南據深泥巨堰之坊 繚以周田 決渠降雨 華實之毛 則三韓之上腴焉 衣食之源 則二義之隩區矣 雖曰地卑 豈不遷歟 於是 朴市田來津獨進以諫曰 避城與敵所在之間 一夜可行 相近茲甚 若有不虞 其悔難及者矣 夫飢者後也 亡者先也 今敵所以不妄來者 州柔設置山險 盡爲防禦 山峻高而谿隘 守易而攻難之故也 若處卑地 何以固居 而不搖動 及今日乎 遂不聽諫 而都避城(『日本書紀』 권 제27 天智天皇 元年).

『日本書紀』의 이 기록은 부흥군의 중심지인 주유(류)성이 농토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자갈이 많고 척박하여 농사와 누에치기가 어려운 반면에 산이 험하고 높고 계곡이 가로막고 있어 지키기 쉬우나 공격하기는 어려운 천험의 요새지였다는 지리적인 조건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곳은 주변이 모두 평야지대로 농사짓기에 편리한 관개시설이 잘 갖추어 있어 三韓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라는 이점을 갖춘 避城(전북 김제 성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부흥군이 옮겨가지 못했다는 기록과 대비될 정도로 모든 것이 척박한 곳이었다. 주류성은 오로지 험준한 지형으로 인하여 방어하기 적합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을 백(촌)강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22) 龍朔三年癸亥 百濟諸城潛圖興復 其渠帥據豆率城 乞師於倭爲援助 大王親率庾信仁問天存竹旨等將軍 以七月十七日征討 次熊津州 與鎮守劉仁顯合兵 八月十三日至于豆率城 百濟人與倭人出陣 我軍力戰大敗之 百濟與倭人皆降(중략) 分兵擊諸城降之 唯存存城 地險城固 而又糧多 是以攻之三旬 不能下(『三國史記』列傳 金庾信 中).

곳에서 찾은 까닭에 주류성의 위치는 백강의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분분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금강의 이북에 위치했다는 설과 금강의 이남에 위치했다는 설로 대별된다.

우선 금강 북쪽에 주류성이 위치했다는 설은 금강 하구의 충남 서천지역에 周留城을 비정하고 있다. 1913년 津田左右吉이 「百濟戰役地理考」(『朝鮮歷史地理』上,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서 처음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는 나당연합군이 웅진강에서부터 백강으로 진군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부흥군과 왜의 수군이 백강구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당의 수군이 오늘날의 금강 하구인 백강 하구에서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백강 하구에 있던 주류성으로 왜의 구원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전투가 백강구 전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류성은 백강의 하구인 오늘날의 서천지역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文武王의 「答薛仁貴書」에 福信이 江西에서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福信이 부흥군을 일으킨 강의 서쪽 지역의 거점이 주류성이라고 하고 서천의 韓山 부근이라고 하였다.

1933년 池內宏은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제14책)에서 주류성의 위치를 더 구체화시켜 금강 하구의 서천군 남부의 吉山川 하류 구릉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²³⁾ 그 뒤 1977년 李丙燾가 韓山の 乾芝山城이라고 구체적인 위치를 제시하였고(『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81년 鬼頭清明(『白村江-東アジアの動亂と日本-』, 教育社), 1983년 沈正輔(「百濟復興軍의 主要據點에 關한 研究」, 『百濟研究』 1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95년 鈴木治(『白村江-古代日本の敗戰と藥師寺の謎-』, 學生社)와 鄭孝雲(『古代韓日政治交涉史研究』, 學研文化社) 등이 모두 李丙燾의 설을 따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李丙燾의

23) 그러나 다음 해인 1934년 논문을 보정하면서 주류성의 위치를 금강의 右岸이 아닌 左岸 즉 동쪽의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며 서천 주류성설을 스스로 폐기했다(池內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 第二冊, 吉川弘文館, 1960, 115쪽 補註 1).

설에 따라 周留城을 韓山의 乾芝山城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98년에 실시한 고고학적 조사 결과 견지산성은 고려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밝혀져 백제말기의 주류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²⁴⁾ 더구나 한산 지역은 금강 하류의 넓은 평야지대로 유명한 곡창지대로 『日本書紀』에 기록된 것처럼 농토와 멀리 떨어져 있고 척박한 지역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주류성 한산설은 타당하지 않다. 沈正輔는 이러한 이유로 한산 견지산성이 주류성이라는 설을 버리고 한 발 물러서 서천군 관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고,²⁵⁾ 더 구체적으로는 신라가 지금의 서천지역에 설치한 舌利停이 주류성을 함락한 후 설치한 것이라고 하였다.²⁶⁾ 그러나 서천 지역에서 조사된 백제시대 성곽 중 『日本書紀』의 기록과 같이 산이 높고 계곡으로 막힌 천험의 요새지로 부흥군의 최대 거점 역할을 할 만한 규모를 갖춘 큰 성곽은 찾을 수 없다.²⁷⁾ 이와 유사한 견해로 1972년 池憲英은 「豆良尹城에 대하여 (『百濟研究』 3,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2)라는 글에서 주류성은 『三國史記』에 나오는 豆良尹城과 동일한 지명을 가리키는 곳이라고 하며 서천군 庇仁面 일대의 산성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비인면 지역에서 백제시대에 축조된 대규모 성곽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류성이 비인면 부근의 산성이라는 설은 성립할 수 없다.

다음으로 주류성의 위치를 충남 燕岐郡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설이 있다. 申采浩(『朝鮮上古史』, 鐘路書院, 1948; 丹齋 申采浩先生 記念事業會, 1986)는 주류성을 충남 연기군 남면 금강변의 元帥山에 비정하였다. 그러나 원수산은 백강과의 지리적인 위치문제는 별개로 보더라도 금강 본류와 미호천이 합류하는 합수지점에 위치하여 산성은 험준하기는 하나 주변에 넓은 들판을 갖춘 평야지대이므로 『日本書紀』에 기록된 주류성의 입지와는 사뭇

24) 忠淸南道 舒川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乾芝山城』, 1998, 250쪽.

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忠淸南道 舒川郡, 『韓山 乾芝山城』, 2001, 82쪽.

25) 沈正輔, 「百濟 周留城考」, 『百濟文化』 28,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9.

26) 沈正輔, 「白江과 周留城」, 『乾芝山城』, 1998, 242쪽.

27) 차용걸, 『백제 지역의 고대산성』, 2005, 242~249쪽.

다른 곳이므로 주류성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1981년에 金在鵬은(『全義 周留城考證』, 『燕岐地區古蹟研究調查報告書—全義篇—』) 주류성이 연기군 북쪽 전의면²⁸⁾ 일대의 험준한 산지에 축조된 산성이라고 하였다. 1995년(『百濟周留城의 研究』, 燕岐郡)과 1999년(『百濟 周留城研究』, 『백제 주류성의 연구현황과 과제』,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공주문화원)에는 자설을 수정하여 연기군 남면의 唐山城을 주류성이라고 하였다.²⁹⁾ 그런데 당산성은 원수산성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으로 주변에 미호천을 사이에 두고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된 곳이며, 해발 160m의 그리 높지 않은 산봉우리에 쌓은 둘레 540m의 토성에 불과하여³⁰⁾ 주변에 험준한 산이나 계곡이 전혀 없는 곳으로 『日本書紀』에 기록된 주류성과는 너무 다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연기지역은 신라의 거점지역이던 청주와도 매우 가깝고 백제의 동쪽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백제의 남방지역에 있어야 할 주류성이 동방지역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류성을 충남 洪城으로 보는 설도 있다. 주류성 홍성설은 조선시대 말기에 金正浩가 지은 『大東地志』 권5 忠淸道 洪州 沿革에 “本百濟周留城”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大東地志』의 이 기록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홍성지방의 향토사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1994년에 朴性興은(『洪州 周留城考』, 洪城郡, 1994) 洪城郡 長谷面 一帶에 걸쳐있는 鶴城山城과 石城이 주류성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1995년(『洪州周留城考—百濟復興戰의 歷史地理的 考察—』, 洪城郡)과 1999년(『唐津 白村江과 洪州 周留城—百濟復興戰史의 歷史地理的 考察—』, 『백제 주류

28) 전의와 인접한 충남 연기군 전동면 다방리의 碑岩寺에서 백제 유민들이 조성한 佛佛像들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의지역을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으로 보고자하는 연구가 있으나, 비암사에서 발견된 불비상들은 백제멸망 직후 신라인으로 편입된 백제유민들이 조성한 것들로 백제부흥운동과는 관계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29) 小林惠子は 김재봉의 초기 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의지역을 주류성으로 보았다(『白村江의 戰いと壬申の亂』, 現代思潮社, 1987).

30) 차용걸, 「연기 당산성」, 『백제 지역의 고대산성』, 2005, 202~203쪽.

성의 연구현황과 과제』,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공주문화원, 1999)에도 계속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주류성과는 상관이 없는 백제 沙尸良縣으로 밝혀졌다.³¹⁾ 또한 홍성은 백제 서북방에 위치한 지역으로 부흥군의 북방 거점성인 임존성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남방 거점성인 주류성으로 볼 여지는 더욱 없다.

1971년에 輕部慈恩은(『周留城考』, 『百濟遺跡の研究』, 吉川弘文館) 부여군 忠化面の 周峰山城을 주류성으로 비정하였다. 부여 충화면 지역은 임천에서 서천 한산으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산지가 많고 周留城의 '주류'와 음이 비슷한 '두루'봉 즉, 周峰山城이 있기 때문에 주류성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음이 서로 비슷한 것만을 가지고 주봉산성을 주류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부여군 충화면은 바로 옆이 가림성이 있던 임천면이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이 부흥군의 거점으로 요충지인 가림성을 우회해서 바로 옆의 충화면 주봉산성으로 수군과 육군이 나란히 진군한다는 것은 지리적인 관계를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여군 충화면의 주봉산성이 주류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류성의 위치를 금강의 북쪽에서 찾는 설은 위에서처럼 네 가지로 크게 정리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금강의 남쪽에서 찾는 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924년에 大原利武는(『朝鮮歷史地理』, 『朝鮮一般史』, 朝鮮總督府) 周留城의 周留와 州柔, 水流는 모두 음이 같아 동일한 지명에 대한 이칭으로 보고 전북 金堤郡 水流面³²⁾을 주류성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를 이어 2002년에 鄭載潤도(『新羅의 百濟故地 점령 정책-完山州 설치 배경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98, 國史編纂委員會) 김제군 수류면이 주류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제군 수류면 지역은 비록 모악산 줄기가 에워싸고 있기는 하지만 지세가 비교적 완만한 편이며 대규모의 백제시대 성곽도 찾을 수 없고, 더

31) 상명여자대학교 박물관·홍성군청, 『洪城郡 長谷面 一帶 山城 地表調査報告書』, 1995.
상명대학교 박물관·홍성군, 『洪城 石城山城建物址 發掘調査報告書』, 1998.

32) 오늘날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역에 해당하며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인터체인지 부근이다.

욱이 수류면의 '수류'의 음이 '주류' 또는 '주유'와 같다 하여 주류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2000년에 徐程錫은(『백제 5方城의 位置에 대한 試考』, 『백제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호서고고학회) 주류성이 험한 산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북 정읍과 전남 장성의 경계로 蘆嶺이 있는 井邑 七寶面으로 추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금강 이북의 韓山 주류성설과 함께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설이 扶安說이다. 1924년에 小田省吾는(『朝鮮上世史』, 『朝鮮一般史』, 朝鮮總督府, 195쪽) 부안읍 혹은 그 부근의 옛 성터가 주류성이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 『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8년 3월에서 4월까지 신라가 대군을 동원하여 함락시키려 했으나 실패한 豆良尹城을 周留城으로 보고, 신라군이 진주했던 古沙比城을 古阜로 보고, 고부 근처의 부안지역에서 『日本書紀』의 州柔城에 대한 기록과 부합되는 곳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산이 험한 곳에 성이 있어 방어하기에 쉽고 공격하기 어려운 곳으로 부안의 邊山을 지목하였다. 1930년에 今西龍 역시 豆良尹城과 周留城을 동일한 곳으로 보고 古沙比城(古阜)과 가까운 고부의 斗升山城을 주류성으로 비정하였으나(『周留城考』,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1929년과 1930년에 걸쳐 『文教の朝鮮』에 연재한 「全羅北道西部地方旅行雜記 扶安郡 편에서는 변산의 位金岩山城을 주류성으로 확정지었다.³³⁾ 今西龍은 주류성이 바로 부안군 변산에 있는 위금암산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1948년에 安在鴻(『百濟史總考』, 『朝鮮上古史鑑』 下卷, 民友社)은 小田省吾와 今西龍의 설을 보완해 위금암산성이 주류성임을 다시금 천명했다.

全榮來는 백강의 위치에 대하여 小田省吾의 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1976년(『周留城·白江 位置比定에 관한 新研究』, 扶安郡)에 주류성의 위치를 부안 위금암산성에 비정하였고, 『日本書紀』의 州柔城 관련 기록을 입증해 나갔다. 그리하여 1982년에 「三國統一戰爭과 百濟復興運動-周留城·

33) 두 가지 주장 모두 1934년에 京城 近澤書店에서 遺著로 간행한 『百濟史研究』에 실려 있다.

白江의 軍事地理學的 考察－(『軍史』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95년에 『우금(周留)山城 關聯遺蹟 地表調査報告書』(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扶安郡), 1996년에 『百濟最後決戰場의 研究－白村江에서 大野城까지－』(新亞出版社), 1998년 『冬老古城과 兆陽城－보성군 조성면의 역사와 유적－』(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양축제추진위원회), 1999년에 「周留城·白江과 扶安地方」(『백제 주류성의 연구현황과 과제』,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공주문화원)과 『부안 우금산성내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부안군·전주대학교 박물관), 2004년에 『百濟滅亡と古代日本』(雄山閣) 등의 논지를 통해 주류성이 위금암산성임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했다. 1979년에 光岡雅彦(「白村江はどこか」, 『支石墓の謎』, 學生社)이 今西龍의 주장을 이어받았고, 盧道陽(「百濟周留城考」, 『明知大論文集』12, 明知大學)은 위금암산성 아래에 있는 開岩寺 重修記 別記를 근거로 위금암산성이 주류성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1995년 盧重國(「百濟 滅亡後 復興軍의 復興戰爭 研究」, 『歷史의 再照明』, 소화: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1996년 이도학(『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2003년 金榮官(『百濟復興運動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2005, 『百濟復興運動研究』, 서경), 2004년 李鍾學(「周留城·白江의 位置比定에 관하여」, 『軍史』5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³⁴⁾ 등이 이를 따르고 있다. 다만, 대개의 학자들이 豆良尹城을 周留城으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盧重國은 豆良尹城을 周留城으로 보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³⁵⁾ 충남 청양군 定山面의 鷄鳳山城으로 보고 있다.³⁶⁾

위금암산성이 자리한 邊山은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4 扶安縣 山川條에

34) 李鍾學의 주장은 주류성의 위치에 관한 문제 역시 백강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全榮來의 글을 거의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35)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3년 조에 “문무왕이 김유신 등 28장군을 거느리고 가서 두릉(량)운성, 주류성 등 여러 성을 모두 함락시켰다”는 기사를 의식한 때문이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36) 古沙比城을 古阜로 보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盧重國, 「百濟 滅亡後 復興軍의 復興戰爭 研究」, 『歷史의 再照明』, 소화, 1995).



<그림 3> 금강과 변산반도 부근의 서해안지역

‘높은 산봉우리들이 100여 리에 걸쳐 중첩되어 둘러싸여 있고, 바위가 크고 계곡이 깊음’ 곳이다. 즉 위금암산성이 자리한 변산은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의 토지도 척박하여 동진강 입구의 계획도에 대한 간척사업이 있기 전에는 농토가 부족한 서해안의 산악지역이었다. 이러한 부안의 변산지역이 갖는 지리적 특징은 『日本書紀』에 수록된 州柔城의 입지와 잘 부합되는 곳이다. 여기에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사 뒷산에 자리 잡은 위금암산성은 해발 330m의 울금바위를 중심으로 한 산 능선을 따라 돌로 쌓은 둘레 3,724m, 면적 890,488㎡에 달하는 거대한 포곡식 산성으로,³⁷⁾ 백제부흥군의 북방 거점성인 해발 480m의 봉수산 정상에 쌓은 예산 임존성의 둘레가 2,426m인 것과 비교해도 훨씬 크다. 즉 부흥군이 거점으로 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곳은 부안의 위금암산성 뿐이다.³⁸⁾

이상과 같이 금강 이남에서 주류성을 찾는 설은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중 부안 위금암산성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금강 이북의 한산설과 연기설, 흥성설, 주봉산성설, 비인설 등과 함께 금강 이남의 김제 수류면설과 정읍 칠보면설 등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日本書紀』에 기록된 주류성의 입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안의 위금암산성설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위금암산성은 지리적으로 험준한 부안의 변산에 위치해 있고 백강의 입구와도 가까운 곳에 있으며, 주변에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짓기에 부적합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주류성이라고 볼 개연성이 가장 높다.

5. 맺 음 말

백제 멸망 직후 일어난 부흥운동은 663년 8월의 백강구 전투와 9월의 주

류성 함락으로 급격히 쇠퇴했다. 백제 북방의 임존성과 가림성 등이 남아 있었으나 부흥운동을 주도한 福信이 周留城에서 豊王에게 제거되고, 백강구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게 패한 豊王이 고구려로 달아나버린 까닭에 백제 유민들은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풍왕이 고구려로 달아난 후 주류성은 나당연합군에게 바로 함락당하였고, 북방의 거점성인 임존성도 원래 임존성에서 부흥군을 이끌던 黑齒常之와 沙吒相如가 당군에 투항한 후 오히려 임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남방과 북방의 두 거점인 주류성과 임존성을 잃은 백제유민들은 664년 3월 사비산성에서의 항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부흥운동을 이어가지 못했고, 백제는 멸망한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간 백제부흥운동의 북방 거점인 임존성에 대해서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봉수산에 있는 석성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나, 남방 거점인 주류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었다. 이는 660년 7월 사비성으로 진군하는 나당연합군이 상륙한 곳과 663년 8월 나당연합군과 백제부흥군과 왜의 연합군이 결전을 벌인 장소를 별개로 본 까닭에 생긴 문제였다. 이제 백강의 입구가 오늘날의 금강 하구라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주류성의 위치도 『日本書紀』의 기록에서처럼 험준한 산에 위치해 있고 토지가 척박하며 농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찾는다면, 부안의 변산만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부안의 변산에 있는 둘레 3,724m, 면적 890,488㎡에 달하는 거대한 포곡식 산성인 위금암산성(우금산성)을 주류성으로 비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지역을 앞세운 향토사가들에 의한 주류성과 백강의 위치에 대한 我田引水式의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원고투고일 : 2007. 9. 20, 심사완료일 : 2007. 11. 16)

주제어 : 백제부흥군, 백강, 주류성, 위금암산성, 금강

37) 전북문화재연구원·부안군, 『扶安 禹金山城 精密地表調査報告書』, 2005.

38) 위금암산성은 禹金山城, 禹陣古城으로도 불리운다.

<ABSTRACT>

The *Baekganggu* Battle and the *Juryuseong* Castle

Kim, Young-kwan

The *Baekje* Dynasty restoration movement that came into existence right after the collapse of the *Baekje* Dynasty in July 660 rapidly declined with the *Baekganggu* Battle in August 663 and the *Juryuseong* Castle battle in September 663. The Combined Restoration Army of *Baekje* Dynasty and Japanese Armed Forces blocked and engaged in a close-range battle with the Combined *Silla-Tang* Armed Forces at the entrance of the *Baekgang* River, but were heavily defeated. The *Juryuseong* Castle, which was the central base of the Restoration Army of *Baekje* Dynasty, was taken over by the Combined *Silla-Tang* Armed Forces. The defeat in these two battles resulted in the *Baekje* Dynasty restoration movement practically coming to an end. There was no consensus reached on the location of the *Baekgang* River and the *Juryuseong* Castle, which are important elements in *Baekje* Dynasty restoration movement research.

There are various theories on the location of the *Baekgang* River in relation to the location of the *Juryuseong* Castle: the *Geumgang* River estuary theory; the *Dongjingang* River theory; the theory that suggests that the location was near *Julpo* of *Buan*; and the theory that the location was near *Asanman* Bay. Most agree that the entrance of the *Baekgang* River, where the Combined *Silla-Tang* Armed Forces landed in July 660, was the estuary of the *Geumgang* River, but there is confusion because some view the entrance of the *Baekgang* River where there was a big battle between

the Combined Restoration Army of *Baekje* Dynasty and the Combined *Silla-Tang* Armed Forces that marched forward towards the *Juryuseong* Castle in August 663 as a different location. This led to a problem: Many suggested that the location of the *Baekgang* River, which was at the entrance of the *Geumgang* River in July 660, changed in August 663, and no consensus was reached on the changed location. However, there is almost no possibility of the location of the *Baekgang* River changing from here and there in just a few years. The entrance of the *Baekgang* River, where the Combined *Silla-Tang* Armed Forces landed to attack the *Sabidoseong*, Capital City of *Baekje* in July 660, is the same place as the *Gibeol* Inlet, and therefore the *Baekgang* River of August 663 refers to the *Geumgang* River. There is no doubt that the *Gibeol* Inlet, where the Combined *Silla-Tang* Armed Forces battled in July 676, was the estuary of the *Geumgang* River, and thus the *Baekgang* River is clearly the *Geumgang* River.

The *Juryuseong* Castle was the southern base of the Restoration Army of *Baekje* Dynasty. This castle and the *Imjonseong* Castle in the north were the two key strongholds of the *Baekje* Dynasty restoration movement. The castle is especially where the leaders of the Restoration Army of *Baekje* Dynasty were stationed. Although it is widely known as a key location of the movement, its exact location is not known. A clue to the location is given in the *Nihonsyoki* (Chronicles of Japan) in which it states that the castle was located on a rugged mountain where the lands were barren, far away from farmlands. There were various theories in relation to the location of the *Baekgang* River because of the attempts to identify a location that has the geographical conditions mentioned above and that is not too far away from the *Baekgang* River. Theories that locate the castl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Geumgang* River are as follows: the *Hansan* theory; the *Yeongi* theory; the *Jubongsangseong* Castle theory; and the *Biin* theory. Those theories that locate the castle in the southern part of the *Geumgang*

River are as follows: the *Wegeumamsanseong* Castle in *Buan* theory; the *Suryumyeon* in *Gimje* theory; and the *Chilbomyeon* in *Jeongeup* theory. With the exception of the *Wegeumamsanseong* Castle in *Buan* theory, these theories have many issues. In particular, they are completely out of line with the location of the *Juryuseong* Castle described in the *Nihonsyoki*. It is clear that the entrance of the *Baekgang* River is today's estuary of the *Geumgang* River. If we find a place that is located on a rugged mountain where the lands are barren and far away from farmlands, there is no place like Mt. *Byeonsan* of *Buan*. In other words, the *Juryuseong* Castle is none other than the *Wegeumamsanseong* Castle, which is a large castle with a valley inside, covering an area of 890,488m², with a width of 3,724 meters, located in Mt. *Byeonsan* of *Buan*.

Key Words : The Combined Restoration Army of *Baekje* Dynasty, *Baekgang* River, *Juryuseong* Castle, *Wegeumamsanseong* Castle, *Geumgang* River